

7
2019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Vol. 290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제41회 양양문화제



6월20일부터 3일 동안 열린 양양문화제 이모저모

양양소식

Vol. 290

CONTENTS

양양소식 · 290호

| 발행일 2019년 6월 27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의기양양

4 민선7기 1년, 기획특집

4 민선7기 1년, 양양군의 변화와 발전을 보다

6 민선7기 1년, 주요성과를 점검한다

12 ISSUE & PEOPLE _ 김진하 양양군수

14 뉴스 브리핑

14 양양작은영화관 개관, 제41회 양양문화제 성료

15 여름해수욕장 7월 12일 개장

개별공시지가 평균 12.09% 올랐다!

16 의정소식

제8대 양양군의회 개원 1년



희망양양

- 18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양양 3□1만세 운동과 종교계 활동

오감양양

- 20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서면 내현리
22 맛있는 양양여행 양양3대 포구의 맛있는 이야기

열린양양

- 24 책이야기 자기 앞의 생 / 이달의 신간
25 정보꾸러미 추천 일자리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민선7기 1년, 양양군의 변화와 발전을 보다

양양군은 지난 민선 6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7기 1년간 구체적인 지속 발전 전략을 모색해 새로운 양양시대를 열고 있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을 극복하고 도시 성장기반을 마련해 16년 만에 인구가 상승세로 반전하였고, 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과의 접근성 또한 좋아졌다. 여기에 도시지역 확장,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도시재생, 경관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양양군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돼 온 사업들이 주민들의 참여에 행정역량의 발휘가 더해져 결실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운송 면허를 획득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 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 발전의 계기가 되고 있다.

민선 7기 1년을 맞아 양양군 발전을 위한 5대 역점 사업의 추진 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양양군의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과 계획, 그 성과를 점검하고자 한다.

양양군의 5대 역점사업

설악산 오색사도 설치(계속)

1

양양군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자 한결같은 바람으로 추진돼 온 설악산 오색 사도 설치의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사도시범이 결정(조건부 가결)되었지만, 환경단체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소송은 기각 및 각하되고 인허가는 진행중으로 올해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보완서 협의를 마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후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 개별 인허가가 처리되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2022년 하반기에 준공, 2023년부터 상업운행할 계획이다.

…노선위치 : 오색리 466번지~ 끝청 하단(해발 1,480m)

…규모형식 : L=3.5km(중간지주 6개)

8인승 53대, 1선식 자동순환식

…사업기간 : 2015~2022년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2

2002년 개항 이후 부진을 보이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올해 3월 플라이강원 운송면허 취득을 통해 양양은 물론 강원도의 관문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양군은 항공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여행상품 점검, 항공사 운영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 분석 등을 위한 자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플라이강원과의 상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구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치 :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노선현황(*19. 4월 현재)

국내선 : 2개노선(양양→김해, 제주)

국제선 : 3개노선(양양→일본 - 기타큐슈,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3개 분야 17개 과제)

3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과 수변 생태관광지 조성은 양양군의 관문으로서 남대천 개발이 갖는 중요한 목표이다. 지난해까지 남대천 상류 생활하수처리 강화로 어성전 1,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가 완료되었고, 올 하반기 법수처리, 오색1,2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추진도 이루어진다. 또한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과 남대천 유역 생태공원이 조성돼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개발을 위해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으로 양양 웰컴센터가 올해 6월 신축되었으며, 남대천 순환도로(군도 4호선)가 지난해 말 착공돼 공사 중이다.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 : 수질개선, 토속어종 방류 등

…남대천 수변 생태관광지 조성 수변 문화광장, 캠핑장, 물놀이장, 생활체육 공원, 수상레포츠 체험장 등

…남대천 및 주변지역 연계개발 : 남대천 순환도로, 문화축제 전용공간,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 오산·가평지구 관광시설 유치 등

낙산도립공원 해제 및 도시지역 확장

4

낙산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는 환경부에서 지난 2016년 승인되었고, 현재 도립공원 해제지역 전략 환경영향평가가서가 보완 제출돼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인하면 군 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에 입안 신청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양군 관리 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는 올해 12월 추진될 계획이다.

…낙산도립공원 지정 : 1979. 6. 22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 환경부 승인 : 2016.11.29

…공원해제 면적 : 8,681,823㎡(8.681㎢)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 용역 : 2017. 3.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580,000㎡	4,525,946㎡	771,321㎡	979,416㎡	1,825,140㎡
6.7%	52.1%	8.9%	11.3%	21.0%

서핑의 산업화

5

양양군은 2019년을 서프 시티 원년으로 하고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국내 서핑 성지(聖地)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YY서핑특구」로 지정하고, 서핑 붐 조성을 위해 서핑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다. 또한 「서핑 플러스」 전략으로 산업 융복합화를 추진하는데 홍보, 마케팅 강화로 서핑 캐릭터 상품(Goods) 개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서핑해안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 지역연계 소득 방안도 강구한다.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위 치 : 현남면 죽도해변 일원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사업내용 : 서핑데마거리, 죽도정물레길 조성, 볼파크공원 조성

…서핑해안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

위 치 : 설악해변외 7개소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사업내용 : 서핑조형물제작, 소규모 긴급사업(야외샤워장, 다목적쉼터, 시계탑, 거치대, 테이블 등) 8개소, 동산포캠핑장 데크시설 확충, 다목적 창고시설, 서핑 기념품 개발 등

민선7기 1년, 주요 성과를 점검한다

- 동해안 중심도시로서
도시 확장의 기반마련
- 정주기반 확충, 귀농귀촌
활성화로 인구 늘리기 성과
- 행복한 양양,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지난 민선 7기 1년의 평가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을 극복하고 도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손꼽는다. 도로망 확충과 광역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양양군의 정주기반이 마련되고, 인구 늘리기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산업이 고르게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고 명품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이 구축되면 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열린 행정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역 전반에서 확대 실현되어 양양군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양양군의 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성과를 살펴본다.

양양군 주요 성과지표

국비확보액(2018년 말) 2014년 562 억원 ↓ 2018년 894 억원 38% 증가	 	예산규모(2019년) 2014년 2,145 억원 ↓ 2019년 3,475 억원 62% 증가
인구(2019년 5월말) 2016년 27,218 명 ↓ 2019년 27,605 명 387 명 증가(2016년 말 대비)	 	주택보급율(2019년 4월말) 2014년 103% ↓ 2019년 108% 5% 증가
관광객 수(2019년 4월말) 2014년 657 만명 ↓ 2019년 681 만명 약 3.7% 증가 (2019년 3월말 770,340명)	 	상수도보급율(2019년 4월말) 2014년 87.3% ↓ 2019년 90.7% 3.4% 증가
희망택시 운행(2018년 말) 2014년 미운행 ↓ 2018년 482 명 수혜 7 개 마을	 	재정자립도(2019년) 2014년 12.5% ↓ 2019년 18.58% 6.08% 증가
인재육성장학금(2019년 4월말) 2014년 40 억원 ↓ 2019년 75 억원 35 억원 증가	 	양양물매출액(2018년도 말) 2014년 125 백만원 ↓ 2018년 376 백만원 약 3배 증가 (2019년 5월말 157백만원)

동해안 중심도시 지속성장을 위한 도시 확장의 기반 마련

양양군은 2030 양양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2035년 양양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으로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 동해안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양양의 미래 산업 신항만 건설

신항만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과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항만으로 양양의 새 시대를 열어갈 산업으로서 준비하고 있다. 신항만사업은 손양면 여운포리 일원에 크루즈부두, 국제여객부두, 컨테이너 부두, 잡화부두의 항만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및 2019년 5월 2차에 걸쳐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요 요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고, 중앙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를 통해 내년 6월 고시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 모색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6개소에서 지속 추진되는 가운데 선도 지구인 양양읍을 비롯해 서면 손양면 등에서 올해까지 추진된다. 또한 송암·연창·청곡지구가 지난해 4월 중앙지방재정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조산·송암지구(양양-낙산 전이지대) 도시개발사업도 타당성 조사 중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도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

양양국제공항이 동해안권 거점공항으로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행정 지원으로 모기지 항공사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항주변마를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추진 중이다.

양양군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양양군종합터미널 이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데, 내년 6월 이전에 착공, 2021년 상반기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이전하는 양양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인근에는 양양농협시장 시설도 신설돼 도시공간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 여건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군내 도로망이 확충돼 군도 4호선 송현~가평간, 군도5호선 수산~여운포간 도로개설이 2021년, 2022년을 목표로 확포장공사가 추진 중이고, 또한 시내 중심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종합운동장~7번 국도간 군 계획도로는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주기반 확충, 귀농귀촌 활성화로 인구 늘리기 성과 시현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인구 감소로 지역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전개된 가운데 지난해 16년 만에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 지역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지속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과 빈집정비 사업 등의 성과를 비롯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 복지 실현

넓고 노후한 농어촌의 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해 50동에 최대 2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19동에 대한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로 75단지 107동 4,434세대가 혜택을 보았고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 지원이 7개 단지에 걸쳐 진행되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과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도 2가구에 추진되었다.

택지개발로 도시 확대

서울~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전원마을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공간을 확대하고 공공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었다.

현북면 중광정리 291-4번지 일원의 옛 군부대 훈련장 8만5603㎡ 부지에 조성된 중광정 지구 전원마을 대지 조성 사업은 교통과 생활여건이 우수해 도시민에게 최적의 전원마을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내년까지 정암 지구 전원마을도 준공될 예정이다.

양양으로 귀농귀촌, 적극 지원

귀농·귀촌 인구는 2010년에 32명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7~80명이 귀농해 정착하고 있으며, SNS 활동 등으로 농사에 대한 정보와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양양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선도 농가에서 영농 기술을 지도받을 수 있도록 농가 현장 실습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킹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지원 정책과 토지·주택 정보, 교육 정보, 양양 소식 등의 정보 제공, 블로그를 통해 영농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비롯해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 분야별 맞춤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력

지역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과 농수산 분야의 지원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양양군 중소기업 융자금 추천 및 지원 15개 업체,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사업 7건 등 기업 지원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일자리 지원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해 직업교육 훈련 등을 실시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과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을 통한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특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요일 시장 운영, 야시장 운영과 함께 왓지길 전통시장 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및 주차장 조성으로 전통시장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양양 웰컴센터를 신축했는데 지상 5층의 문화 집회시설로 3, 4층에 94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 2개관을 조성해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기대된다.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산업의 균형 발전 도모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지역 2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종합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 운영한다. 중소기업과 농특산물, 정보화 마을 온라인 쇼핑몰을 양양몰로 통합하고 도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마트'에 입점하기로 하는 등 양양지역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으로 농업분야의 지원과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도 앞두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농산물 가공 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 농업인의 창업 가공 활동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나선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증양식 육성 어촌기반 시설 개선 및 지원한다.

새로운 관광브랜드 창출을 통한 명품관광도시 밑그림 구상

양양의 주요 관광지로 주목받던 오색지구와 낙산지구가 오색자연 휴양체험지구로 조성되고, 낙산지구로 정비되는 가운데 남해 1리 해안관광자원 개발, 설악산(오색) 만경대 탐방로 조성 등 명성 있는 관광지 조성이 활발해진다. 또한 해안 경관 개선으로 지경 경계 철책 철거(0.52km)가 추진 중으로 해변 관광지로서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휴양중심의 관광지 기반 구축

양양군 지경 관광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내에 도로 등의 기반 시설 설치와 함께 관광지 조성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경관광지는 지경리 해변 15만7,687㎡에 아울렛, 96실의 호텔, 상가, 휴양시설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리조트가 건설된다. 또한 양양 국제공항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영동지역 관광 경쟁력 중 부족했던 쇼핑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자생식물원이 조성됐는데 생태·자연학습이 가능하도록 유실수원과 향토수종원, 품계원, 수생습지원 등 4구역으로 나눠 조성해 관광객들의 호응이 컸다. 자생식물원 조성으로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은 현재 운영 중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목재문화체험관, 구탄봉 탐방코스 등과 연계해 동해안권을 대표하는 복합산림휴양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프시티 양양의 기반 마련

서핑메카의 주요 지역 중 하나인 시변리에 도시기반 시설 정비 및 주차장 공간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 이 지역은 죽도해변 중심가로 서핑숍과 게스트하우스, 상가 등이 밀집해 있고, 인구해변, 죽도암 등 인접 관광자원이 풍부해 많은 인파와 차량이 몰리고 있지만, 주차시설이 부족해 도로변 주·정차로 교통 혼잡이 빈번하게 발생해온 지역이다.

해변경관을 고려하여 주차 블록을 활용한 191면의 주차공간을 조성 완료해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서핑 핫플레이스인 죽도해변을 찾는 서프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및 주차장이 조성된 셈이다. 또한 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서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이 선정돼 2021년까지 서핑 테마거리와 죽도정 바다 돌레길을 조성하고, 그 외에도 활어 판매장, 볼파크 공원, 프리마켓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관광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하는 복지, 열린 행정, 행복도시 만들기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고 군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분야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집중하고 특히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정책, 기초 생활 보장자 확대 지원,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등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아이 돌봄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께 하는 복지, 건강 100세로 행복한 양양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관리와 국가 암검진 등의 선제적 대응을 비롯해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한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검진 하는 등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보건 의료를 강화하고 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자치 행정 구현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하고 민원수수료를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친절공무원제 등을 운영해 민원인 편의를 제공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7개 마을의 희망택시를 운영해 교통 편의를 개선했다.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했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개선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24개 마을의 밥순가락 개수까지 압니다

강원도 내에서 양양군은 규모는 작지만 알찬 지자체로 성장하고 있다. 그 중심에 김진하 군수가 있다. 재임 5년을 지나면서 마을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덕분이다. 이른 새벽이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출근을 하는 습관이 있어, 일명 ‘동네 한 바퀴’ 군수라고 불리는 그는 지역민들과 함께 가는 군정으로 지역발전을 이끈다. 내실 있는 양양을 이끌기 위해, 오직 양양 사람으로 양양을 변화 발전시키는 사람, 김진하 군수를 만난다.



4년 + 1년의 준비와 도약으로 내일을 완성하는 시간

김진하 군수의 민선 7기 1년을 묻는 자리는 유쾌했다. 자신감 있고 힘차게 지난 시간들을 평가하고 희망을 이야기한 덕분이다. 그 배경에는 이미 민선 6기 4년의 시간 동안 준비하고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들이 지난 1년동안 실행되고, 올해 완성되는 시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보통 정책이 수립되고 준비돼 실행되기까지 3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준공하기까지 또 3년의 시간이 소요되니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은 최소한 6년의 시간이 필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6년 차를 맞이하면서 여러 숙원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 감회가 남다르죠.”

재임 후 양양 발전을 위해 공약했던 정책들을 추진해 오면서 양양군 5대 역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완성되고 있어 다행스럽고 보람 있다고 한다. 이제는 큰 틀의 5대 역점사업이 마련됐으니, 올해부터 내실 있게 구체적인 과제들을 완성해 양양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장 보람된 성과는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한 것

재임 5년의 시간에 대해 가장 보람된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양양군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것을 가장 먼저 손꼽았다.

대표적인 성과로 지난 2016년, 2017년 각각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2016년 재정효율성 부문, 2017년 재정건전성 부문에서 양양군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등급을 2년 연속으로 받은 것이다.

또, 2016년에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양양군이 10대 우수사례로 포함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 역시 큰 자랑이라고 한다.

또한 공모 사업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동안 누적된 채무를



모두 갚았다니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만한 자부심도 없을 것 같다.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양양군을 탄탄하게 꾸리겠다는 의지가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인구 3만의 양양군이 희망

지난 5년을 돌아보며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김진하 군수는 이제는 다시 양양발전을 위한 꿈을 키우고 계획할 때라고 말한다.

“도립공원 폐지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발과 투자 여건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투자여건이 확대되면서 일자리 창출, 세수 증가,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기 위해 내실 있는 도시 정비를 해야죠. 그리고 또 다른 목표로 신항만 건설을 통한 양양군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의 5대 역점사업을 통해 변화 발전하며 탄탄한 군정을 이끌어왔는데,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신항만 건설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죽도해변의 서퍼들이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즐기는 모습은 낯설고도 보기 좋은 풍경이었다.

해수욕장 개장 전인데도 서핑을 배우고 즐기는 서퍼들로 6월의 양양 해변은 활기가 넘쳤다. 서핑의 핫 플레이스 죽도 해변은 어촌마을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여름 한철 피서객들이 찾았던 해변이 사계절 북적이는 서핑 스폿으로 변화했으니 말이다.

“서핑덕분에 양양해변의 풍경이 바뀌었잖아요? 주민들도 서핑을 즐기게 되었으니 양양의 또 다른 변화예요. 이러한 변화를 만들고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시작점이자 원동력입니다.”

정작 김진하 군수는 물을 무서워해 서핑은 도전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서프시티 양양으로 성장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이러한 열린 자세로 양양군을 변화 발전시키는 김진하 군수는 힘센 파도를 넘어 우뚝 선 서퍼의 모습을 닮은 것 같다.

(글·사진 : 편집부)

C ‘가까워진 영화관, 신나는 문화생활’ 양양작은영화관 개관

94석 소규모 영화관 개관으로 문화갈증 주민들에게 대비

지난 18일 양양전통시장 인근에 조성해온 웰컴센터의 양양작은 영화관 개관식이 열렸다.

영화관람은 우리나라 국민이 여가활동 중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인구 2만7천명의 양양군의 경우 영화관의 부재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로 나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6년부터 국도비를 포함한 4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양양읍 남문리 210-36번지 일원 1,297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1490규모의 문화 집회시설인 웰컴센터 3층, 4층 공간에 2개관 94석의 작은영화관을 조성하였다.

양양군 작은영화관은 양양군민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영화관의 60~70%수준 관람료로 매일 5~7편의 최신 개봉영화를 서울과 동시 개봉,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다양한 작품 관람이 가능하도록 영화를 상영하여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극장 운영은 다수의 작은영화관 운영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영화관의 매점의 경우도 상업영화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어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관식은 양양군수(김진하)의 개관사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후 영화관 시연회가 열렸으며 시연회 첫 상영작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고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관내 사회단체장 80여명을 초청하여 상영하였다.

군 관계자는 “양양군작은영화관의 개관으로 영화관람을 위해 인근시군으로 나가야 했던 군민의 불편이 해결될 것”이라며 “양양의 작은영화관이 문화예술과 소통의 공간이자 군민을 위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화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성수기 최대 6~7회 운영되며 관람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일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단체관람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양양작은영화관 : 033-673-7050 / 홈페이지: <http://yangyang.scinema.org/>)

문의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시설관리담당 Tel. 033-670-2795

C 제41회 양양문화제, 군민 화합의 큰마당 펼치고 성료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41회 양양문화제와 제51회 군민체육대회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마무리되었다.

양양문화제위원회(위원장 윤여준)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만 명 이상의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해 지역화합의 축제가 됐으며, 특히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 재개 등의 호재 속에서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통합하고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으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역 청소년과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군장병 등 민·관·군 700여명은 양주방어사행차와 대포수군만호행차, 신석기인 가장행렬 등을 연출하며 대규모 시가행진을 펼쳤으며, 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는 기미년 양양 지역의 3.1만세운동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행사가 펼쳐져 호국과 애국충절의 고장임을 재확인했다. 또, 양양 대표 문화콘텐츠인 ‘상복골농요’ 및 ‘수동골상여소리’를

시연해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으며, ‘전국한시백일장’, ‘국악경연대회’, ‘읍면 대항 농악경연대회’, ‘현산백일장’ 등 다양한 전통·문화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양양지역 6개 읍·면 주민들은 체육행사와 민속놀이, 농악경연 등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씨름과 줄다리기, 목침뺏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11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 민속놀이 경기에서 ‘강현면’이 우승했으며, 체육경기에서도 ‘강현면’이 1위를, 농악은 ‘현북면’ 대표팀이 차지해 지역의 명예를 드높였다.

윤여준 위원장은 폐막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제41회 양양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며, “이번 문화제를 통해 보여준 군민 자긍심과 단합된 의지가 명품도시 양양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담당 Tel. 033-670-2728

C 양양지역 여름해수욕장 7월 12일 개장

낙산해수욕장 등 21개 해수욕장 운영, 수상인명구조원 채용 등 준비 박차

우리지역 21개 여름해수욕장이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45일간 운영된다.

지난 6월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각 마을 해수욕장은 영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속초해양경찰서, 양양소방서, 속초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해수욕장 운영 관리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올 여름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가장 큰 규모의 낙산을 비롯해 하조대, 설악, 동호, 정암, 물치 등 총 21개소(해안선 7,495m)다.

해수욕장 개장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지만, 물놀이 구역 내에서의 수영 가능 시간은 피서객의 안전을 고려해 수상안전요원이 근무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다.

여름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모집한 65명을 포함 총 90~100명의 수상안전요원을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배치해 피서객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올 여름해수욕장은 시설물 전대행위 금지, 백사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정비·설치, 위험지역 경고판 설치, 최소 2명의 수상안전요원 확보, 바가지 및 불친절 해소 등 피서객 중심의 안전한 해변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올 여름 편안하고 즐거운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개장 기간 전 구간에 걸쳐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숙박업소 가격정찰제를 실시한다. 또 낙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개인 파라솔 자율설치구역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죽도·기사문·잔교 등 피서철 서핑이 활성화되고 있



는 해수욕장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발생하는 서핑구역과 해수욕 구역의 갈등해소 대책을 마련, 상생에 나설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윤학식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은 “피서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편의시설과 여름이벤트를 통해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피서객 중심의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지역 21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는 총 339만여명으로 나타났다.

문의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관리담당 Tel. 033-670-2518

C 양양군, 개별공시지가 평균 12.09% 올랐다!

우리군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2.09% 상승률을 보이며, 도내에서 첫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군은 산정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2월말 고시)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검증□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군이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토지는 총 115,758 필지(사유지 71,281필지, 국□공유지 44,477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12.0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0.46%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로 전국 평균 상승률 8.03%와 강원도 평균 6.17%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높은

수치이다.

※ 양양군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최근 3년)

2017년 4.97%, 2018년 10.46%, 2019년 12.09%

읍□면 지역별로는 강현면이 20.10%로 가장 크게 올랐고, 현남면 15.95%, 현북면 11.69%로 뒤를 이었다. 양양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서핑 등 해양레포츠를 기반으로 관광경기가 크게 활성화된 점, 공동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실거래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또는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의 허가민원실 지적정보담당 Tel. 033-670-2153



제8대 양양군의회가 걸어온 1년 군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동행하겠습니다!

취임 1년, 의회의 문턱을 더 낮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양양군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늘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군민과 함께 고민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돌아해보면 부족함과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저희 의원들은 부족했던 부분은 더 연찬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하며, 더 열정적인 자세로 양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8대 양양군의회는 지난 1년동안 의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원들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소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 의회의 문턱을 더욱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례회 3회, 임시회 7회 등 84일간 총 10회 회기 운영

139건 안건 심의 의결, 의원 공동 발의 조례 15건 제·개정

제8대 양양군의회는 2018년 7월 2일 개원한 이후 올해 6월 있었던 제241회 정례회까지 84일간 회기를 운영했다. 임시회 7회, 정례회 3회 등 총 10회의 회기를 운영해 13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1년의 기간 동안 군정질문(2018, 2019) 2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2018년 제2회, 제3회 추경예산, 2019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등 숨가쁜 의정활동을 펼쳤다.

양양군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의원들 간의 충분한 토의와 조사를 거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8대 양양군의회는 의원 공동 발의를 통해 1년간 총 15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입법활동에 힘을 쏟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했고,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복지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번 제241회 정례회에서는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최근 문제



가 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와 수상에서의 조난사고로부터 주민들의 보호장치를 만드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열린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촉구집회에 참가하여 양양공항 활성화를 향한 군민의 뜻을 함께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양양경찰서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올해 5월 양양에서 개최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설립총회에서 2020년 양양경찰서 신설 예산안이 정부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최된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 40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군정 주요사업장 10여곳을 현장 점검했다.

6월 19일부터 2일간 실시한 군정질문에서 김귀선 부의장은 맛있는 야시장이 수 차례 운영되었는데 협소한 공간과 다양하지 못한 품목으로 한계를 갖고있으며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택철 의원은 시내 중심 도로변에 쓰레기 방치문제가 심각 한데 집행부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의성 의원은 양양으로 진입할 때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특성화된 홍보시설물이 없으므로 양양읍성 주변에 누각을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박봉균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5억원 한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추진이 안되고 있다며, 군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석 의원은 우사 및 그물 건조장 설치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난 6월 24일부터 2일간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사업 등 군정 현안사업 현장 10여곳을 점검했다.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의원들은 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올해안에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 줄 것을 촉구 하고, 주차장 조성 이후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CCTV설치와 단속강화를 건의했다.

지경관광지 조성 현장에서 의원들은 사업대상지에 설치한 가림막이 주변 경관을 저해하므로 본격적인 피서철이 오기 전에 벽화 제작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종합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사유를 점검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또한 터



미널 조성시 기사들의 안전운전 및 사기진작을 위해 기사 휴게소 설치를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양양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들은 송이공원 인근의 셋강 주변 활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쪽배 체험, 자전거 도로 개설 등이 여름 장마철에 시설물 유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현황분석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매호생태 복원사업의 공사 착공 지연과 관련하여 의원들은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 구체적인 사업지연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을 당부하고, 주민 요구사항(현남중학교 지중화, 포매호 지하통로 박스 설치 등)의 반영 여부도 설명해줄 것을 건의했다.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사업 현장에서는 어구보관 창고와 작업장 사이에 관광객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산항 봉수대 진입로에 적치된 어구 시설물을 정비하여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군민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했다. 사업의 설계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 반영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양양 3·1만세 운동과 종교계 활동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양양군은 7개면으로, 상업의 중심지는 양양면 양양장터와 강현면 물치장터였다. 동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도로는 교통수단으로 발달하지 못했고, 영서지방과의 교류는 오색령이나 구룡령 산길을 도보로 넘어 다녔다.

그러나 양양의 문호인 대포항에서 뱃길로 원산항을 거쳐 경원선 철도를 이용하여 경성(서울)으로 쉽게 오갔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까지도 연결되어 있어 대포항은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에 인근 마을에 있는 물치장터는 상업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유교 중심의 유림사회가 주도하다

당시 양양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유림중심의 사회였다. 고려조부터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학의 고장으로, 유림들은 씨족과 집성촌을 이루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중 대표적으로 임천리 함평이씨와 광주 노씨, 손양면 수여리 전주이씨, 조산리 강릉최씨, 현남면 한양조씨 등이었다.

양양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말에 유림의 대표인 이석

범(李錫範) 선생이 향리 10여 명과 함께 고종황제 인산(因山)에 참여 후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 오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종교인, 양양보통학교 출신의 마을 구장들과 농민들을 규합하여 4월 4일부터 9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직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다

1901년 10월 5일 하디 선교사가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양양면 성내리 17번지에 성내리교회(양양감리교회)를 설립한 후, 1908년 경 전도부인 백설화에 의해 양양면 조산리에 조산교회를 설립, 1910년 경에는 충청도에서 안순학이 강현면 물치리로 이사 오면서 물치교회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현북면 기사문리에서 태어난 이풍운 목사도 1910년 4월 5일 세례를 받고 현북면 상광정리에 광정교회를 설립하였다.

또 한편으로 양양감리교회 조영순 전도사의 딸 조화벽(趙和璧)은 1919년 3월 3일 개성 호수돈여학교 재학 중에 비밀결사대원으로 어윤희, 권애라 등과 함께 개성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만세운동이 확산되자 3월 5일 휴교령이 내려졌고, 조화벽은 독립선언서를 버선목에 숨기고 경원선 열차로 원산을 거쳐 배편으로 고향인 양양 대포항으로 들어왔다.

대포항에 도착하자 일경은 소지물을 전부 압수하고 조사하였지만 가방 속에 숨겨온 독립선언서는 발각되지 않았다. 조화



현 양양감리교회

벽은 청년지도자인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를 인계하고, 당시 유림의 지도자인 이석범 선생과 연결되어 만세운동을 함께 계획하였다. 그리고 양양교회 김영학 목사는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시무하면서 조산교회, 물치교회, 광정교회를 순행하며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또한 만세운동에 모인 군중들에게 일장연설을 하다가 일경에게 잡혀가 무수한 매를 맞고 서대문 감옥에서 6개월 간 복역하였다.

민족대표 만해 한용운 스님 낙산사에 기거하다

양양은 통일신라시대 이후 불국정토(佛國淨土)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다. 삼국시대 신라가 강성해 지면서 양양을 중심으로 불교의 성지로서 면모를 갖추었고 많은 사찰과 문화유적이 전해 오고 있다. 기미년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양양의 신흥사에 원적을 둔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스님이

낙산사에 주소를 두고 기거하고 있었다. 그는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의 공약삼장(公約三章)을 기초하였고, 자주 독립을 위해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일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는 죽음을 무릅쓰는 각오로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3월 1일 탑골공원

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에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르고 출옥 후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4월 7일 만해 한용운의 민족정신에 감응된 낙산사 스님들은 저녁 술시정각(戌時正刻:오후 8시 정각)에 범종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고각에서는 법고소리를 계속 울렸다. 이에 모두 오

봉산 정상에 올라 바라소리를 울리면서 횃불을 들고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에 이르도록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다시 절로 내려와서는 법당에서 자정까지 대한독립을 염원하는 불공을 올렸고, 각 면에서는 산위에서 봉화를 올려 전군민이 봉화를 바라보며 조선독립을 염원하는 만세를 불렀다.



현 낙산사 의상대



옛 양양장터



현 물치 장터



현 대포항



현 양양향교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사상이 전파되다

양양의 천도교는 1860년 최재우(崔在宇)가 창시한 동학사상이 2대 교주인 최시영에 의해 전파되었다. 1869년에 김경서, 최혜근이 경상도 영양군 일월산에 있던 최시형에게 다녀온 그해 3월부터 1870년 10월까지 양양 산중에 은거하면서 포교하였다. 그 후 1908년 4월경에는 천도교 회당 1개소가 세워졌으며, 교구장 및 교역자 2명과 신도 213명으로 창립하였다.

만세운동 첫날인 4월 4일 오후에 경찰서장실에서 함흥기와 함께 뛰어 들어가 화로를 던지려던 간리의 권병연도 일경의 칼에 목을 맞아 쓰러졌는데, 당시 신분이 확실치 않던 권병연 외에도 서면 상평리 박준실, 도천면 논산리 손계원, 서면 조개리 지석화는 모두 의병이나 천도교인으로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4월 6일 조개리 지석화는 상평리 김학구의 장례식에 먹을 음식 100여 명분을 준비하여 걸어서 왔다가 일경에 체포되자,

다음날 4월 7일 이에 격분한 천도교인들과 양양면 만세군중 300여 명이 합세하여 양양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만세를 크게 불렀다.

〈당시 일경이 강원도장관의 전화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양양군 7일 오후 2시 반 천도교도(七日 午後 二時半 天道教徒)를 중심(中心)으로 약 3백명(約 三百名)의 군중(群衆)이 운동(運動)을 개시(開始)하여 양양읍내(襄陽邑內)에 압기(押奇)하여 부수모자 4명(付首謀者 四名)을 체포(逮捕)하여 해산(解散)시켰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양양 3·1만세운동은 유림 대표 이석범 선생과 기독교인 조화벽과 김영학 목사와 애국 독립사상을 가진 권병연과 지석화 같은 의병 출신이나 천도교인, 그리고 불교계의 거장 만해 한용운 스님 등 종교계의 걸출한 독립 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친 구국운동으로 전국에서는 유래가 없다.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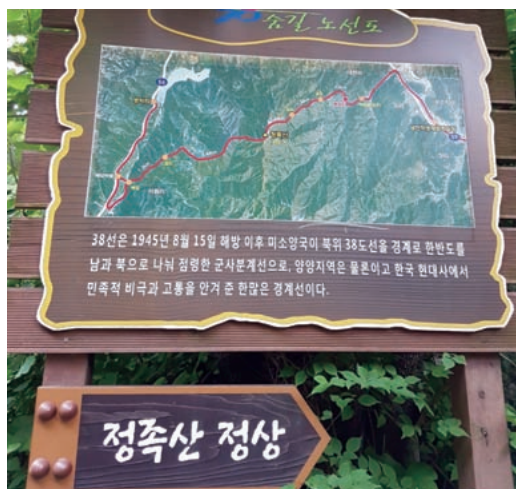
양양군 서면(西面), 내현리(內峴里)

큰 고개 넘어 마을이 있다 하여 안고개 마을
10대손 토박이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가족 같은 마을
어르신들이 소일할 수 있는 사업으로 희망을 부른다.



내현리 전경

심산유곡(深山幽谷) - 38선 숨길로 다시 열린다.



양양군에서 최고의 피서지로 손꼽는 어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내현(內峴)리는 큰 고개(峴)를 넘어가야 하기에 ‘안고개 마을’이라고도 한다. 마을 안쪽으로 골이 깊은데, 1960년대만 해도 화전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집터와 담장으로 보이는 돌무더기가 곳곳에 흩어져 있고,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굴피집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계곡을 따라 늘어난 펜션들이 피서객들의 발길을 모은다.

내현리는 해발 869m 높이의 정족산(鼎足山)을 뒷배로 하는데, 정족산(鼎足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세 봉우리가 높게 솟아 그 모양이 ‘술의 발(鼎足)’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이 산의 정상에 오르면 설악산을 비롯하여, 양양군 시가지와 동해 바다를 시원스럽게 조망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군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하였던 배경이 있는 바로 이곳이다. 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에 ‘38선 숨길’이 조성되었는데, 현북면 38선 휴게소에서 시작해 서면 내현리, 영덕리까지 이어지는 56km의 탐방로이다. 정족산은 ‘38선 숨길’의 주요 코스로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바탕으로 한 가치 있는 길이다.

정족산 등산로와 갈라지는 길에서 원시림 계곡을 따라 30여 분 걸어 올라가면 또 다른 비경이 펼쳐진다.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와 수풀에 가려 물줄기를 내뿜고 있는 폭포가 등장하는데 높고 곧은 절벽에서 곧장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시원하다. 따로 이름은 없지만 깊은 숲속에 자리한 폭포 덕분에 계곡을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20여 년 전에 내현리에 등지를 튼 김병삼 씨를 비롯해 인근 주민들은 마치 숨겨둔 보물이라도 되는 듯 폭포 자랑에 여념이 없다. 내현리 계곡에 반해서 이곳으로 이사해 거의 매일 폭포를 오가며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며, 비 내린 뒤에 촉촉한 계곡길을 안내하는 내내 자랑이 끊이지 않는다.



오래된 마을은 앞으로 더 오래간다.

내현리는 토박이가 30여 호, 펜션을 비롯한 휴양 별장에 거주하는 20여 호까지 총 50여 가구 8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10대째 토박이로 살고 있는 주민들과 마을 안쪽 계곡을 따라 늘어선 펜션을 운영하는 이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마을일을 맡은 김대영 이장(64세)은 이 마을에서 10대에 걸쳐 살고 있는 토박이다. 1984년에 군대를 제대한 후 영농후계자가 되어 5년 정도 이장을 맡았다가 은퇴하고 올해 다시 마을일을 맡았다. 이장을 맡으면서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내현리는 대부분 소농인데다, 60대 서너 명을 제외하면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이어서 특별히 마을주도의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시고, 내현리로 귀촌□귀농한 주민들과 협동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숲속 치유 길’과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도모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숲과 계곡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정족산 등산로를 비롯한 ‘폭포길’ 가는 곳을 정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 내현리 종합복지회관 앞마당에는 100여년이 넘는 호두나무가 마을 지킴이로 우뚝 서 있어 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듯 하다. 오래된 마을에서 나는 향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다.

특별할 것 없지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살아오는 마을이자, 주민들이 너나없이 가족처럼 지내는 고즈넉한 내현리는 마을 뒤편에 우뚝 솟아 곳곳이 살아내는 정족산과 닮아 있다.

〈글·사진 : 편집부〉



목적지도 없이 양양의 푸른 바다를 찾아 떠난 길이라면!

양양 3대 포구의 맛있는 이야기

늙은 어부의 꿈도 새파랗게 젊은 청춘의 어부와 다를 바 없이 만선이다. 고무다라이가 차고 넘쳐날 만큼 튼실한 청동 빛 대가리에 윤기 흐르는 살집의 생선 한 마리를 잡아 아침포구를 간절하게 들썩거리려 놓고 싶은 업적이 아직도 멈추지 않은 꿈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바다가 잠들지 않는 것은 침몰한 별빛을 기억하기 위해서라지만, 어느 어부에게도 그저 속절없을 허망일 뿐이다. 오로지 어부의 삶이란 만선의 꿈이다. 설령, 그물코 사이로 송송 떨어져 나가는 절망으로 둔갑하더라도, 내일 아침이면 또 다시 한 평생 그렇게 꿈을 쫓듯이 짙은 수목색 바다에 안기는 일상이 꿈인 것이다. 한 평생 멈추지 않는 어부의 삶들이 닳을 내리고, 고단한 여정을 풀어내는 포구는 그래서, 짙고 푸른 바다를 찾아 떠난 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할 쉽표 같은 곳이다.



가을 송이가 바다를 만난 '물치항 활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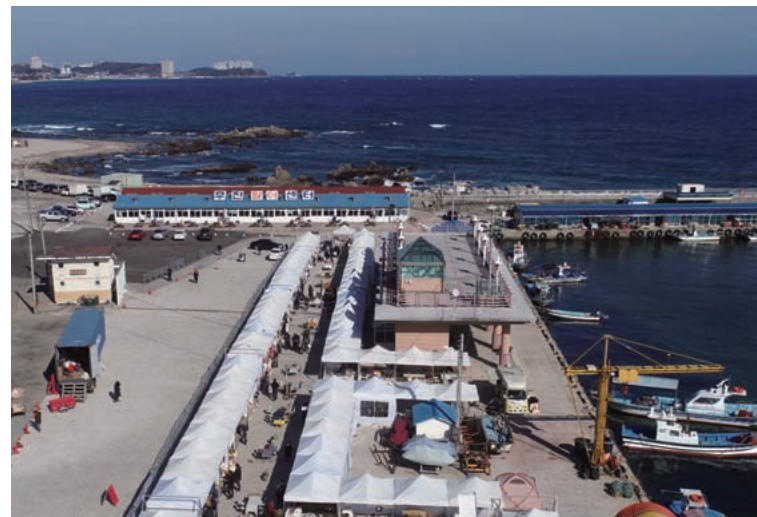
등대를 찾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등대가 볼거리가 된 포구이다. 가을 산에 있어야 할 양양의 천년 송이가 특이하게도 바다에 있다. 새벽으로 가는 고깃배들이 행간처럼 오가는 양쪽으로 붉은색과 흰색을 띤 송이 모양의 조형등대가 있다. 넓은 바다를 둘러 파도가 만경일 때도, 파도가 잠잠한 '장판'같은 날에도, 청 푸른 하늘에 매달린 붉은 홍시 한 점인 듯 떠오르는 아침나절에도 만상의 배경으로 뜻하지 않은 풍경이 있는 곳이다.

발길 돌려 들어선 활어센터에는 싱싱한 활어들로 가득한 수족관이 복도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가격만큼 골라 먹든, 입맛이나 식감에 따라 골라 먹든 중첩되지 않은 횡감을 고르고 2층에 올라 기다리면 횡상을 가져다준다. 날 것의 싱싱함이 가득 뱀 투명한 횡감 한 점에 빨간색 송이등대가 묘하게 어울리는 물치항 활어센터이다.



오봉산에 오른 해수관음상의 '후진항 활어센터'

금강산, 설악산과 함께 관동3대 명산인 '오봉산' 자락에 있는 포구이다. 천년고찰 낙산사는 알아도 그 산자락의 이름이 '오봉산'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드물다. 7번국도의 오봉산 고갯길에서 속초 방향으로 내려서면 곧바로 만나는 설악해수욕장 옆이 후진항이다. 활어센터에서는 초승달 곡선으로 이어지는 설악해수욕장 해변 끝으로 평저형의 오봉산 자락이 바다까지 닿아 있다. 밤바다를 기키는 등대지기처럼 16m 높이의 해수관음상은 여전히 오가는 고깃배들의 길라잡이가 되어 밤마다 오봉산에서 조명으로 빛난다. 그 빛을 따라 고만고만한 크기의 고깃배들이 밤새 잡아 온 물 것들이 싱싱하다. 횡감이야 어디인들 크게 다르지 않지만, 미처 못하지 않은 풍광의 이야기가 단맛처럼 호젓한 후진항 활어센터이다.



포구와 늪은 노송이 그린 '남애항 활어센터'

서두르지 않아도 서정의 그리운 투정으로 기억되는 포구이다. 오목한 포구지형을 둘러싼 파란 하늘 아래 붉은 색, 파란색 지붕도 그림이 되고, 섬이었던 두 봉우리에서 200년의 오랜 세월을 여전히 품고 있는 소나무도 그림이다. 매화 꽃잎이 이곳 포구로 떨어진다 하여 낙매(落梅)로 불렸다고 하니 애초부터 남애항은 그렇게 아름다운 포구였었는지 모를 일이다. 무엇 하나 흠겨 대할 풍경들이 없으니, 이 또한 값진 것이라 할 만 한데, 아침 포구의 가성비 좋은 싱싱한 횡감은 이곳 활어센터에서 더 맛이 난다. 오목한 포구의 나른한 일상을 고스란히 보고 즐기며 젓가락에 한 점 올린 횡감이 무릇 맛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남애항 활어센터이다.

〈글 · 사진 : 강원도외식저널대표 황영철〉



책 이야기

“삶에 대한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

열네 살 모모의 눈에 비친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모모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사랑에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모모는 이들을 통해 슬픔과 절망을 딛고 살아가는 동시에, 삶을 껴안고 그 안의 상처까지 보듬을 수 있는 법을 배웁니다. ‘모모’와 그를 맡아서 기르게 된 유태인 ‘로자 아줌마’의 이야기는 지친 일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꽃처럼 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모와 로자 아줌마는 서로 고분고분한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겨우 14살인 모모는 너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모는 엄마처럼 따르고 사랑했던 로자 아줌마에게 닥친 죽음의 고통을 로자 아줌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적이 있었던 로자 아줌마가 그 고통의 피난처로 꾸며놓았던 지하의 공간에서 편안히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사랑의 가장 높은 방식은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 주는 것임을,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모모와의 만남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기 앞의 생 / 로맹 가리 지음 / 문학동네 / 2003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 데미안
헤르만 헤세 지음, 민음사, 2000
- ☐ 이방인
알베르 카뮈 지음, 민음사, 2011
- ☐ 달콤한 노래
레일라 슬리마니 지음, 아르테, 2017

책 속 밑줄 긋기 = 『하밀 할아버지는 빅토르 위고도 읽었고 그 나이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았는데, 내게 웃으며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완전히 희거나 검은 것은 없다. 흰색은 흔히 그 안에 검은색을 숨기고 있고, 검은색은 흰색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는 박하차를 가져다주는 드리스 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오래 산 경험에서 나온 말이란다.” 하밀 할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였다. 다만, 주변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p. 96)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여행의 이유

김명하 지음 / 문학동네 / 2019

작가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홉 개의 이야기로 풀어낸 산문집입니다. 작가는 부모의 임지를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유년기부터, 누군가와 오래 알고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행과 이주를 반복하는 동안 여행기, 모험소설에 빠져들었고, 작가는 책의 시간과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어린 시절에 관한 내밀한 이야기, 생애 첫 해외여행,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강제 추방당했던 에피소드 등을 담담하게 들려줍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잠자요

이르지 드보르자크 지음 / 북뱅크 / 2019

동물들의 잠자는 모습을 흥미로운 정보로 알려주고 동물들의 특성을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림으로 잘 살린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동물들의 기상천외한 잠자는 모습과 동물들의 습성과 생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와 고양이부터 여우나 북극곰, 이름도 낯선 파랑비늘돔, 초록나무비단뱀 등 다양한 동물들의 잠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책 속에서 자연을 침대로 삼아 잠든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따스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재성정보통신	1명	통신장비설치·수리원	08:30~18:00 (주5일)	연2,160만원이상 (협의)
(주)해송KIS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175만원
계양호부 노인복지센터	1명	재가요양보호사	08:00~11:00	사급11,000원
(주)남애기전	1명	총무사무원	08:30~18:00 (주5일)	월175만원
무산복지재단 (일삼일팔무산지역 이동센터)	1명	사회복지사	10:00~19:00 (주5일)	월175만원이상
초원환경산업(주)	1명	건설 기계운전원 (크래쉬운전 및 정비)	08:00~17:00 (주5일)	월250만원이상
주식회사 새서울레저	3명	건물 영선원 수진환경기술자	09:00~18:00 (시간협의)	연3,200만원이상 (경력자)
매종엘앤에프	1명	자재·물류사무원 (지게차운전가능자)	09:00~18:00 (주5일)	월190만원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하조대캠핑카	2명	카리반청소원	11시~16시	사급1만원~ 민2천원
현대시설관리(주)	2명	청소원 (미천골휴양림)	09:00~17:00 (주6일)	월190만원
설해원 골든비치	3명	주방보조원	5시~15시/10시~20시 (주40시간.휴게2시간 포함)	219만원
골든에스앤씨	2명	주방조리사(찬보)	6시~15시/11시~20시 (월6회 휴무)	월210만원
	10명	룸메이드	8시30분~18시 (주6일)	월210만원
	5명	프론트 사무원	8시30분~18시 (주6일)	월210만원
효담노인복지센터	1명	사회복지사	9시~18시 (주5일)	월175만원
	1명	시설장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9년 6월 21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치매진단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 40만원)
- ※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 치매어르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연락처 : 1899-9988)



**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합니다.

· 관련 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 등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을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 성년후견제도

장래 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

속초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안내

속초의료원에서는 야간진료 및 소아과 병동(입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사 업 명 :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장사업
- 사업내용
 -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 야간진료 시간 : 18:30 ~ 23:00(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 ※ 저녁시간 제외 : 17:30 ~ 18:30
 - 입원실 운영
 - 현재 1실 5병상의 입원실 운영 중이며 2실 10병상까지 확대 예정
- 진료안내
 - 원무과 야간수납 창구에서 접수 → 2층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실
- 문의 : 033-670-2548(보건소), 033-630-6015(속초의료원)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330㎡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자진신고하는 지방세입니다.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9. 7. 1 ~ 7.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1일)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과세대상 : 연면적330㎡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납부세액 : 사업소연면적(㎡)×250원(세율)
- 신고 및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우편,FAX : 신고서 제출 및 수납납부서 작성후 금융기관에 납부
 -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1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주민세 담당
 - FAX : 033-670-2147
-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033-670-2786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공 고
 - 공고기간 : 2019. 7. 1. ~ 7. 15.
 - 공고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 접 수
 - 접수기간 : 2019. 7. 16. ~ 8. 16.
 - 접수장소 : 양양군청 환경과
 - 접수계획량 : 300대(연식우선고려, 선착순아님)
 - 제출서류(공고문 참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원금액 : 최대165만원(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이있음)
- 문 의 : 양양군청 환경과 (☎033-670-2331)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1장의 고지서에 함께 고지 합니다.

〈 과세연도 중 부동산 거래 시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시점은 잔금지급일 등 취득의 시기를 의미함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

- 부과시기 및 납부기간
 - 주택분, 주택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납기 : 7. 16 ~ 7. 31)
 - 주택분(20만원 초과시 나머지 1/2), 토지분 : 매년 9월(납기 : 9. 16 ~ 9. 30)
-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가상계좌이체
 -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민원실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033-670-2107, 2148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경품 행사

- 행사기간 : 2019. 5. 27. ~ 2019. 7. 12.
- 행사대상 : 행사기간 중 자동이체(계좌·카드)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규 신청한 세대 또는 사업장
-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방법
 - 유선 신청 : 1577-1000
 - 인터넷 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직접 방문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링크 방문
 - 웹ED(ed.nhicin.or.kr) 또는 M건강보험(모바일앱)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경품내용
 - 미세먼지 마스크 400개 ... 1박스 4만원 상당
 - 당첨자 발표 : 2019. 7. 29.(월)
 - 당첨안내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질병관리본부
KCDC

해외여행 시 이것만은 꼭!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 출국 전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챙기기
-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 귀국 후 감염병 증상 ☎1339 신고하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발행일 2019.1.29(화)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2019 양양군 양성평등대회

양성평등대회
7/2(화) 13시
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

강원여성독립운동가 사진전
7. 2.(화) ~ 7. 5.(금)
문화복지회관 1층 전시관

◆ 주최 : 양양군 여성단체협의회
◆ 장소 :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양양읍 일출로 540)

무릎이 아프신가요? 수술비 지원 해 드립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나눔과 베풀음으로 우리 함께 걸어요”

신청문의 **NAVER 노인연락처** **질병**
1661-6595
www.ok6595.or.kr

■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술관절)'에 해당
- 대상자 :
 - ① 의료급여 1, 2종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 ③ 차상위계층 ④ 한부모가족

■ **수술비 지원**

-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한쪽 무릎 기준) 검사비, 진료비,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 **접수기관**

- 전국 시, 군, 보건소 (보건소 신청시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명시된 진단서 지참)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이사장 **김민호**

노인의료나눔재단은 보건복지부와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지뢰사고의 아픔 국방부가 함께 합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지뢰사고 피해 지원이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59호, 2019.4.22. 제정 2019.6.1. 일부개정안 시행)

■ **지원 대상자** 1953.7.27 ~ 2012.4.15까지의 지뢰사고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지원대상자** 1.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2.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9.6.1 ~ 2029.5.31.
신청처 지뢰지원심의위원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 / 02) 748-5962)

■ **신청 방법** 신청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식** 국방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입부분야별 자료 - 서식 -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활용

■ **지급 절차**
위로금 등 신청서 접수 → 사실 조사 → 위원회 심의 결정 지급

■ **산정 기준**

- **위로금** : 사망자 : 위로금 X (1+{[지급일-사망일] / 365 X 0.05})
 - 상이자 : (휴업위로금 + 장제위로금) X (1+{[지급일-상이일] / 365 X 0.05})
 - 상이자 중 사망자 : 휴업위로금 + 장제위로금 + 사망위로금
 * 위로금 : 월 평균 임금 X 장제 하업기간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X 본인 및 생합계 공제율 X (1-피해자 과실률)
 위로금이 한치의 액을 감당 할 수 없는 경우 조정이금(조정이금 한도) 가능
- **의료지원금** : 기저질환치료비 + 보조비 + 보장구 구입비 + 향후치료비

■ **금융자산 3년 이상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 102-748-5962094 우편지침서** 인민당국에 이송할 수 있음 /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9 NAKSAN BEACH FESTIVAL

낙산비치페스티벌

2019.8.3. Sat - 5. Mon
양양 낙산 해변

8.3. Sat

EDM 워터건 파티

14:00-18:00

‘의기양양’ 오늘은 낙산트롯

19:00-21:00

한가빈/신유/윤태화/임영웅/요요미

쿨썸머 난리부르스 EDM 파티

21:00-22:20

미드나잇 버스킹존

23:00-24:00

8.4. Sun

버물리댄스 선발대회

14:00 - 18:00

‘소리질러’ 힙합 스페셜

19:00 - 21:00

타이거JK/윤미래/비지

쿨썸머 난리부르스 EDM 파티

21:00 - 22:20

미드나잇 버스킹존

23:00 - 24:00

8.5. Mon

‘슈퍼스타낙산’ 콘테스트 예선

14:00 - 18:00

‘슈퍼스타낙산’ 콘테스트

19:00 - 21:00

송가인/세컨드/장민호

8.3. Sat - 5. Mon

랜드마크 포토존 운영

어린이풀장

캐리와 친구들 놀이터

드론 촬영

치맥 파티존 운영

주최·주관: 양양군



MBC 강원영동